

社會의 變化와 大學의 葛藤

朴 明 圭

(全北大 社會學科)

1. 머리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고등 학생들이 모든 생활을 大學 進學이라는 단일 목표의 달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듯한 사회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집념이 한국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 된 측면이 없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는 것이다. 일제하에서 大學敎育 제도의 형태가 이식된 이래 대학에 대한 기대나 그 역할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황도 없이 오늘 우리 사회의 대학은 그 엄청난 진학열과 그에 따른 양적 팽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의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대학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심각한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왜곡된 사회 현실의 산물이기도 한 학생 운동의 첨예한 전개는 그것이 가져온 의미 있는 사회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존립 양상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運動圈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범주화되는 학생들과 교수들 간에, 교수와 행정 당국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대화나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못한 채 사회의 중요한 변혁이 이들 운동권 학생들의 뜨거운 구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현실은 대학 내부의 갈등과 왜곡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의 갈등은 교수와 학생에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들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 간에도 수 많은 갈등과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실로 대학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의 대학이 당면한 이러한 갈등은 결코 대학 자체내의 상황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갈등은 곧 한국 사회의 갈등 현상의 일환이며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갈등의 해소 방안 역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학만의 문제나 대학만의 역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오늘날의 대학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먼저 오늘의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 보면서 그러한 문제의 배경적 요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합의의 부재 또는 시각의 대립에서 찾아진다고 본다.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각각의 시각은 대학을 전문 기능 인력의 양성소로 해석하는 사람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혁을 담당하는 개혁 집단으로 해

석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수 많은 답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아노미적 상황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 오늘날의 대학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自意識에 심각한 분열 증세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만의 것이 아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과 대학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편의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혼돈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예는 적지 않다. 기능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바쁜 대학생들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다가도 결국은 그들이 가장 현명한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딪치는 경우는 많다. 그러면서도 기능인으로서의 혼란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진실성과 진지한 역사 의식을 접할 때는 그것이 바로 대학의 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과연 대학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부하기 짝이 없고 종시 그 답이 주어질 수 없는 물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찰은 대학 내부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전체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된 한국 사회, 끊임없이 변모하여야 할 한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오늘 대학의 존재 이유를 반추해 보고 그를 통해 대학의 갈등 구조를 추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韓國 社會의 變化와 大學의 位相

대학도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학은 그 사회의 성격이나 변화와 무관할 수 없고 언제나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위상이 바뀔 수 밖에 없다. 귀족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민중의 민주적 참여의 방식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의 대학과 오늘날의 대학이 그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미국 사회의 대학과 소련 사회의 대학은 그 존재 양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학문의 중심지로서 다른 사회 제도와는 구별되는 자신의 독자성과 관념적 우월성을 확보해 왔다. 흔히 '진리의 전당' 또는 '상아탑'이라는 말 속에서 표출되는 대학의 자의식은 다른 사회 제도의 현실성이나 기능성과는 구분되는 철학적이고도 본질적인 진리 탐구의 장이라는 관념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특히 유교 문화의 유산을 강하게 받고 있는 동양 사회에 있어서 학문과 사상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대학의 이러한 자의식을 뒷받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산업화의 도상에 있는 제3세계 일반에서 부여되는 變革集團으로서의 大學, 다시 말하여 그 사회의 역사적인 변혁과 지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라는 의식이 한국의 대학에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해방 후의 한국 사회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産業化와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정부 주도하의 경제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선진 산업 국가들과의 밀접한 결합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해외 부분과의 밀접한 관련을 토대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근대화나 발전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러한 산업화는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을 자신의 틀에 맞게 재편성시키는 원형으로 작용하였고 산업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도태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제도적 차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산업화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제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확대시켜 왔다.

산업화의 진행은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전문화·기술화·조직화의 경향을 확대시켰다. 산업화를 제일의 가치로 평가하는 체제는 결국 효율성을 제일의 척도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조직화·전문화·기술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경우도 사회 전체의 변화와 그 의미를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성적 사고나 행동이 뿌리 내리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기술적인 효용과 도구적인 실용성을 지니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역도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영역이 기술적인 효용성으로 평가받는 1차원적인 문화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정부 주도하의 급격한 산업화는 분단 체제라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사회 전반의 기능적 결합과 통합을 중시하고 하위 체제의 자율성이나 갈등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權威主義의 文化를 강화시켜 왔다. 특히 유신 체제 이후 지속된 비이성적인 권위주의의 유산은 한국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여 왔다. 비판과 반성을 허용하지 않는 독선적인 정치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특히 사상의 자유나 종합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하위 제도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화의 특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임금 구조의 유지 체제에 관한 것이다. 후발 공업국으로서의 경쟁력이 값싼 노동력 이외에 있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사회적 대가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대학 졸업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임금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의 유지 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을 통하지 않고 저임금의 상태를 벗어나기는 극히 힘들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저학력자들에 대한 저임금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의 특성은 그 대로 한국의 대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학은 점차 산업화의 수행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적 지식의 산출과 전수라는 사회적 기능을 강요받았다. 동시에 한국의 대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산업 사회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용과 수용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학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의 반공 이념의 세련화와 함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 이데올로기의 확립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의 중요함의 의의를 무시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의 사회적 기능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깊은 자기 점검이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인 인식의 노력에 태만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관련하여 많은 기능적인 지식이 증대해 온 것에 비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희소하였고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토론과 반성의 노력이 자리 잡지 못하였다. 공식적인 커리큘럼은 자신의 사회에 대한 분석력과 역사 의식의 증진이라는 문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기능적인 지식 전달로 일관되었다. 대학의 제도는 한국 사회의 변화선상에서 변모를 강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조망해 보는 데 필요한 주체적인 사고 능력과 논의 구조는 자리 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는 대학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학의 타율성과 무감각이 깔려 있다. 부끄럽게도 대학의 이러한 타율성과 역사 의식의 결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극복을 주장한 것은 소박한 이상론과 실천 윤리에 터한 대학생들로부터였다. 학생 운동의 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때문에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이다.

3. 大學의 反文化的 狀況과 아노미

오늘날의 대학의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學生運動으로 표출되는 大學人의 反文化的 성격을 중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한 항거,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의존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의 대두 등 대학 문화의 일정한 측면에서 반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분명히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도

전은 이들 대학 문화의 한 부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대학 문화의 반문화적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 체제의 정당성을 미리 상정한 채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 문화의 문제점만을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어떤 의미에서 대학 문화의 반문화적 비판의식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부의 독점과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존의 심화와 실질적인 민족 자주권의 미성숙, 효율성을 위장한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의 출현과 그 유지를 위한 비이성적인 통제 등 우리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과 대학의 반문화적 성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抵抗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문제점이 아니라 大學의 意識이 生命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이 책임 있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형태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미성숙한 대학생들의 윤리적 정의감과 이상론에 의해 사회 비판이 이루어지게 된 기왕의 역사인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과 사회간의 갈등은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부정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을 통해 조직화되고 기술적 합리성이 중시되는 산업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대학이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대학이 산업 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 당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증대하면서 대학도 산업 사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현재의 대학인들은 때때로 심각한 아노미적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조직 내의 기능인으로 위치지워지며 그곳에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회 의식이나 역사 의식이 아닌 기능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중시될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철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어 회화나 일어 회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비분강개나 밤늦은 토론보다 영어 학원을 다니며 취직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의 대학생들은 기능적 지식의 습득이라는 문제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훈련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적지않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신입생들은 가장 먼저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한 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묻는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거의 전공 공부와는 별도로 취직 시험을 위해 영어 공부나 경제 공부(그것도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별도의 취직 공부나 기능적 훈련을 쌓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 개척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정적으로 그와 같은 기능 인력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 속에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에 관심을 둔 자도 자신의 그러한 관심이 장차 자신에게 가져다 줄 현실적인 불이익(취직 시험에 응시하기 어렵다든지, 졸업 후에 필요한 기능적 훈련의 부족 등) 때문에 언제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대학생들은 철저히 기능적인 고급 인력으로서의 자신의 상품 가치 증대에 전력하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적인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의 개발을 중시하는 자들로 크게 나뉘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그 양자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종종 그들은 자신의 고민을 호소하고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지만 그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닌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은 산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

화적인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 운동의 반문화적 성격과 그에 기초한 정치적 투쟁성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노미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이 노정하고 있는 반문화적인 측면과 아노미적인 측면이 모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학 나름대로의 반응인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도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글 마무리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좁은 의미의 기능인 양성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이성의 훈련과 역사 의식의 함양에 무관심한 체 산업 사회의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기능적 지식인의 양산에만 전념하는 것은 대학의 본래적인 존립 의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다. 대학은 언제나 자기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터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대학인의 노력은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기능적 지식 전수에 전념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 시장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대학은 노동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의 상품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디까지나 사상과 학문의 탐구라는 고전적인 이념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상품성은 별도의 체제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학이 겪고 있는 葛藤과 아노미적 상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公開的이고 理性的인 비판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 사회와 더불어 존재한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구조를 強壓적으로 덮어둔 채 대학의 갈등이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대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의 모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